KiRi 리포트

| 글로벌 이슈 |

아시아 주요국 가상자산보험 제도 동향

홍보배 연구원

요 약

아시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보험 제도의 정비와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당국 주도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호주와 UAE는 기존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화된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 가상자산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험은 위험보장 수단을 넘어 산업의 신뢰 형성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될 것임

○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보험 제도의 정비 및 규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24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17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1)]
- 가상자산보험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기존의 전통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하거나, 해당 산업 특성에 맞게 보장 내용을 특화한 상품을 지칭함
  - 대표적인 리스크는 주로 핫 월렛 도난(해킹 포함),[2)] 시스템 침해, 내부자 횡령과 같은 사이버 리스크 외에도, 규제 위반, 투자자 소송, 이사진 책임 등에 대한 배상 리스크까지 포함됨
  -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가상자산보험의 제도화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핫 월렛 도난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보장 공백이 존재함
- 최근 홍콩, 싱가포르,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비교적 빠르게 가상자산보험에 대한 규제 체계와 감독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음[3)]

○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대표 금융허브로서 금융당국 주도의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홍콩은 보험회사의 가상자산 보험 인수가능성을 높이고자 가상자산 보험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 중임[4)]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고객 자산의 98%를 콜드 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보험회사는 핫 월렛 리스크만 인수하도록 하였음

1) Horizon Grand View Research, "Asia Pacific Cryptocurrency Market Size & Outlook, 2030"(https://www.grandviewresearch.com/horizon/outlook/cryptocurrency-market/asia-pacific)
2) 특히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지갑으로 접근성과 유동성이 높지만 보안에 취약하며, '콜드 월렛' 또는 '콜드 스토리지'는 오프라인으로 분리된 지갑으로 해킹 위험은 낮으나 실시간 거래에는 비효율적임
3) Willis Towers Watson(2025. 5. 20.), "Digital Assets Insurance: Regulatory Trends and Requirements in Hong Kong, Singapore, UAE, and Australia"
4) Deacons(2025. 2. 7.) "SFC's Regulatory Initiatives for Hong Kong's Virtual Asset Market"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유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핫 월렛 리스크만 인수해야 함에 따라 소량임에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고 인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에 따라 SFC는 기존의 98% 콜드 스토리지 규정을 완화하되, 보안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또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상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소송이나 규제 대응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수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고, 9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함[5)]
- 법적 의무는 아니나 싱가포르 기업은 핫 월렛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장 준비나 금융기관 제휴를 고려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호주와 UAE는 가상자산 보험에 있어서 과거에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규제를 지향해 왔지만, 최근에는 점차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식의 제도화된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

• 호주는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와 민간 주도의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나, 2025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6)]

- 2025년 3월 발표된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자산 수탁 업체, 일부 브로커는 기존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되며,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이 요구됨
- 보험 측면에서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요건이 도입될 예정임

• UAE는 두바이, 아부다비 등 특구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금융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보험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7)]

- 특히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수탁자산 보험, 범죄 보험, 전문직·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아부다비 등도 이에 발맞춰 가상자산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업인가 취득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면서, 가상자산보험은 단순한 위험 이전 수단을 넘어 산업의 신뢰 형성과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 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법적·행정적 공적 규제와 보험 인수라는 민간 자율성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율과 민관 협력의 강화가 한층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Leader Insights(2024. 4. 2.), "MAS Introduces New Crypto Regulations, Including Digital Asset Custody"
6)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2025. 3. 21.) ,"Developing an Innovative Australian Digital Asset Industry"
7) Willis Towers Watson(2025. 5. 20.)